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되나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인하 후 폐지 검토

조선대·원광대 내년부터 인하... 타 대학 움직임 주목

정부가 입학금을 실비(實費)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대표 사립대학인 조선대는 2018년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낮추기로 해 타 대학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은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

처리를 하는 데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책정한 입학금이 사립대의 경우 2017학년도 기준으로 1인당 77만3500원이다. 일부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먼저,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능하고자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끌어내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원광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3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올해 입학금(57만6500원)의 20% 수준이다.

중앙적으로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8개가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폐지) 법제화하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대학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사립대들이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입학금 평균액이 60여만원으로 타 사립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남뉴스

이 외침 언제까지...

광주 종교생 日 대사관 앞 수요집회

광주지역 중·고교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한 뒤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고·상일여고·송일중·일동중 등 지역 중·고교생 75명과 교사 5명 등 80명이 30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98회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날 수요집회에 앞서 ‘그날의 소녀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부끄러운 미래가 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시위를 한 뒤 헌일 위안부합의 폐기를 외치는 자유발언행사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수요집회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 등을 둘러본 뒤 임정 요인과 윤봉길·이봉창·백정기·안중근(가묘) 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광주송일중 3학년 박다원 학생은 “피해자들 중 생존자들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생전에 일본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유발언 때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미안하다’는 일본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말을 듣고 일본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편견을 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일동중 김태우 교사는 “집회 시위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이 다수였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주차장 넓은 문화전당에 나들이 오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 동구 장동에 있는 부설주차장(옛 광주여고) 건립을 완료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승용차 539대, 대형버스 45대 등 모두 602대를 주차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5·18 특조단에 전문가 6명 추천

헬기사격 등 조사팀 3곳... 정부 건의키로

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국방부 5·18 특별 조사단에 광주지역 관련 전문가 등 6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에서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방부 특별 조사단의 조사지원팀·헬기사격 조사팀·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에 참여할 인사로 각 팀에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5·18 관련 단체, 지역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광주시 5·18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5·18 관련 단체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헬기 사격,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설과 관련된 연구의 전문가 등을 추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1일께 특별조사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 국방부에 추천인사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광주시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을 포함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해 9월 초부터 3개월간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의 인원은 30여 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 해질 19:01 | 다음날 14:46 | 다음날 00:26

가을 문턱
대체로 맑고 낮과 밤 기온차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8/29	보성	맑음	16/29
목포	맑음	20/28	순천	맑음	19/30
여수	맑음	21/29	영광	맑음	16/27
나주	맑음	16/29	진도	맑음	20/28
완도	맑음	19/29	전주	맑음	16/27
구례	맑음	15/29	군산	맑음	17/27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5/28
해남	맑음	18/29	축산도	맑음	21/25
장성	맑음	15/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부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파부질현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42	08:25
	14:25	21:40
여수	밀물	썰물
	09:47	03:29
	23:58	17:41

◇주간 날씨

9/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	☀	☀	☀	☁	☀	☀
17/29	18/28	18/28	19/28	21/27	21/28	21/29

“농협, 수입농산물 판매 당장 멈춰야”

전국 농민단체 투쟁 선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30일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에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전농은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농협 정신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농민을 죽이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농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가 지적되고 있는

데도 조합장들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협이 전국적으로 수입농산물 판매를 막을 근본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도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한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산 과일을 전시했다. /김용희기자 kimyh@

문대통령 기념우표첩 25만부 추가 발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표첩 2차 추가발행분이 24만9000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5~28일 예약 접수를 받은 추가 발행량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당초 발행량인 3만2000부의 약 8배에 달한다.

우표집 판매액은 64억6300만원이다. 330원짜리 기념우표 500만장과 420원짜리 시트 50만장도 사실상 ‘완판’(완전 판매)돼 우표 및 우표첩 총 판매액은 8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정판 ‘이니콧즈’로 인기를 끈 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첩은 사전 판매 인기

에 힘입어 지난 16일 한 차례 1만2천부 추가 발행 결정이 내려졌지만, 17일 발행일 추가발행분까지 3만2000부가 전량 판매됐다.

우표첩은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모습까지 모아놓은 ‘나만의 우표’를 비롯해 우표 전시 1장, 시트 1장, 초일봉투 1개로 구성돼 있다.

발행일 우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전국 총괄 우체국은 북새통을 이루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역시 구매자가 몰려 접속 지연을 겪었다. 우정본부는 제작완료 시점을 10월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6621@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28	18
	국제한국어교육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